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

제2021-1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호주 흰반점병 바이러스가 호주의 새우, 게를 죽인다

퀸즐랜드 남동부 새우(Prawn) 농장을 황폐화시킨 이국적인 흰반점병이 로건 강에서 야생 새우와 작은 게를 죽이고 있으며 모어튼 만에 널리 퍼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새우(prawn)에 대한 수입요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 수산물 질병 전문가는 바이러스의 개방적인 도입이 호주 어업인과 양식관계자보다 수입업자를 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을 위한 조사에서 벤 디글스 박사는 로건 강을 둘러싼 수로에서 죽은 banana prawn과 작은 게를 발견했으며, 발병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디셉션 만의 해양 먹이사슬의 작은 갑각류 종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다양한 갑각류를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종들에 통틀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것은 먹이사슬 안에 있고 불행하게도 그것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생 질병 전문가는 말했다.

동쪽 해안을 따라 생물보안이 항상 지켜지지 않는 국가의 새우 양식장으로부터 신종 양식 질병을 방지하고자 호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나쁜 소식이 있다.
Diggles 박사, 새우 양식업자, 미끼, 야생 어획물 어업자, 그리고 수산물 산업협회는 호주에서 흰반점병 바이러스와 검사조차 되지 않는 신종 수생질병을 죽이기 위해 수입업자들에게 가열(cook) 새우를 취급하도록 강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로건강에서 흰반점병으로 폐사한 야생 banana prawn

◆ 일자 : 2021년 1월 17일
◆ 출처 : ABC News
(https://www.abc.net.au/news/rural/2021-01-17/prawn-white-spot-virus-killing-wild-australian-prawns-and-crabs/13060200)
(원제 : White spot virus killing wild Qustralian prawns and crabs, with some experts saying ‘it is here to stay’)

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

제2021-2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동향 흰반점병으로 인해 중국 수출 중지되었던 에콰도르산 새우

중국 정부가 수입 화물에서 흰반점병이 발견되자 에콰도르의 대형 새우인 Songa에 출하를 중단했다고 National Chamber of Aquaculture(CNA)가 확인했다.

2019년 중국과 에콰도르의 합의에 따라, 각 새우 배치(Batch)에서 흰반점병 검사가 실시된다.

에콰도르산 새우의 중국 수출은 7월부터 대대적인 침체를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사 제품이 포함된 외부 포장에서 COVID-19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중국으로의 수출 회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콰도르의 새우 생산업체들은 COVID-19의 모든 발견은 최종 목적지로 가는 유통 과정 중 외부 출처와의 접촉에서 기인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8월 중순 에콰도르 최대 새우 수출국인 Santa Priscila과 Empacreci에 대해 비슷한 수출 중지 조치를 해제한 뒤 Empacadora del Pacifico(EdPacif)의 새우 수입 중단을 해제했다.

중국과 에콰도르 당국자간의 대화는 지난 8월 양국이 에콰도르 새우의 아시아 국가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의정서에 서명하는 결과를 낳았다.

◆ 일자 : 2021년 1월 25일

◆ 출처 : Intrafish

(https://www.intrafish.com/shrimp/ecuadorian-shrimp-producer-suspended-from-china-after-w)

(원제 : Ecuadorian shrimp producer suspended from China after white spot discovered)

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

제2021-3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호주 호주의 새우 수입 관리

농업수자원환경부는 호주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입품과 관련된 생물보안(biosecurity)을 통한 위험관리에 전념하고 있다.

2016년, 농업수자원환경부는 다수의 기업에 대한 규제 준수 조치와 함께 조리하지 않은 수입 새우에 대한 생물보안 국경통제 위반 의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16년 12월 퀸즐랜드에서 흰반점병(White spot disease) 발생 이후 6개월간 조리하지 않은 새우의 수입이 유예되었다.

그 후 2017년 7월 무역 재개에 따라 식용을 위한 새우 수입 조건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2018년 9월과 2020년 7월에 무역 동향과 생물보안위험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대응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강화된 국경통제는 다음을 포함하여 수입 새우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관리된다.

- 호주 슈퍼마켓에서 수거한 조리되지 않은 새우 수입품
- 조리되지 않은 새우에 대한 국경 검사, 2명의 검사원이 밀봉 검사 수행
- 승인된 호주 3개 시험소의 질병 검사를 위한 품질 보증 프로그램
- 수입업체 및 공급망 성능 모니터링

생물보안검사관은 2017년 새우 수입에 대한 생물보안 통제 효과를 검토한 뒤 2019년 이러한 조치들의 준수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현재 국경에서 기준 미충족 비율은 0.45%이며 기준에 미달될 경우 모두 재수출 또는 파기된다. 농업수자원환경부는 현재 새우에 대한 수입 조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과학자문단 구성원들은 수입 생새우가 초래하는 생물보안 위험에 대한 부서의 평가를 독립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법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처벌 제도와 수입업자에 대한 벌칙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

◆ 일자 : 2021년 2월 3일

◆ 출처 : Mirage News
(https://www.miragenews.com/management-of-prawn-imports-into-509204/)
(원제 : Management of prawn imports into Australia)

해외 수산생물 질병발생 동향

제2021-4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브라질 브라질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발생

브라질 내륙부의 고이아스 주, 북서쪽의 미나스제라이스 주, 상파울루에서 양식중인 틸라피아에서 Infectious spleen and kidney necrosis(ISKNV)가 총 6건 발생하였다.

[발병 세부정보]

발병국가	Gouvelândia, Goias Perdizes, Minas Gerais Rubinéia, Sao Paulo Santa Fé do Sul, Sao Paulo Morada Nova de Minas, Minas Gerais
품종	Nile tilapia(*Oreochromis niloticus*)
발생질병	Infectious spleen and kidney necrosis(ISKNV) * ISKNV는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의 원인체
최초발병일	2020. 4. 15.(확진일 : 2020. 7. 30.)
OIE통보일	2021. 2. 4.
발병근원	○ 불분명함
후속조치	○ 국내 이동금지, 모니터링, 추적 등
발병지역	
현재 상황	이 발생 상황은 진행 중

◆ 일자 : 2021년 2월 4일

◆ 출처 : http://www.oie.int/wahis_2/public/wahid.php/Reviewreport